
제8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 결과

2017. 12. 22.

국 가 기 록 관 리 혁 신 T/F

제8차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전체회의 개최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2017. 12. 22.(금), 10:00~13:00
- (장 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8층
- (참석인원) 위원장, 위원 및 지원팀 등 22명
 - 안병우(위원장), 심성보, 설문원, 조영삼, 이원규, 현문수, 정경희, 이상민, 전진한(위원) ※ 홍성덕, 최재희, 임진희, 김창조 위원 불참
- (회의내용) 분과별 추진현황 보고 및 안전 토의

□ 주요 논의 내용

< T/F 운영 관련 >

- (회의록 확정) 제7차 전체회의 회의록 확정 여부 → 확정
- (회의록 공개) 제7차 전체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 → 공개 결정

< 혁신 추진체계 구성·운영 계획 관련 >

- (구성운영)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혁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및 체계적 실행을 위해 혁신 추진단(6개월) 구성·운영
 - 혁신추진단 구성(총 8명, 외부 2명 참여), 자문위원회 구성(10인 내외), 협의체(각급 기관 기록관리 전문가 30여명 참여) 구성
- 국가기록원 조직진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강화, 폐단혁신 등의 과제들이 누락 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설문원, 심성보)
- ⇒ 과제에 반영되어 있고, 폐단혁신은 T/F 권고에 따라 추진예정(총괄팀장)

< 분과별 과제 관련 >

- **(1분과)** 「국가기록관리 체계혁신」, 「국가기록원 기능·조직 혁신」
과제는 준비가 완료되지 못해, 차후 보고 예정
 - 1과제는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사안별로 위원들이 보고서 작성
중으로 다음 회의에 공개 초안을 보고 드리겠음(심정보)
 - 1과제 처리 방안,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결정 필요(위원장)
 - 사안별 확인사항, 문제점 등을 포함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이원규)
 - ⇒ 일부 사안(NLL, 제16대 대통령기록물 논란)에 대해서는 기록관리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어 기록조사·수집 등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심정보)
 - ⇒ 1과제의 보고서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의
형태로 남기되, 비공개(위원장)
- **(2분과)** 초안을 마련하여 수정 중으로, 추진시기(우선, 중장기), 법령
또는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구분하여 정리함(설문원)
 - 3분과(대통령기록관리 혁신)와 기록의 범위·성립, 전자기록의 성립
등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논의 필요(설문원)
 - 정보공개 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관련 의견을 반영하였고, 부존재로
인한 공익 침해에 대해 감사, 처분동결제도 도입을 고려(설문원)
 - 혁신 과제를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과제 순으로 정리 필요(전진한)
 - 과제별 구체화 필요하고, 전문요원의 업무영역을 상세하게 제시 필요(심정보)
 - 단순 나열을 통한 도식화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조영삼)
 - ⇒ 전문요원의 권한·책무와 관련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정리(설문원)
- **(3분과)** 우선과제(4개 과제)는 거의 완료하였고, 중장기 과제는 2분과의
제안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 예정(이상민)

- 정치적 악용 방지의 경우, 사례를 중심으로 방지 방안 제안 예정
- 악용에 대한 정의 필요(이원규)하고, 타법령(의료법) 사례와 같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차용 필요(전진한)
- 가지정, 최종지정 등 지정시점 통제 (이원규)및 가지정에 의한 비공개가 이슈이므로 해소방안 마련 필요(김형국)
- ⇒ 제도를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이상민)
- 가지정을 미리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이고, 내용누설 관련 벌칙 강화 필요(조영삼)
- 정보유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반영하는 것도 타당(전진한)
- 서버베이스 컴퓨팅 도입 관련 삭제 시점 및 수사 등의 문제로 논란 발생 소지가 있고(심정보), 폐기 기준 명확화 필요(설문원)
- ⇒ 생산단계 통제 위해 서버 기반 컴퓨팅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고, 기업들도 서버기반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 공공기관도 가능(이영남)

< 보고서 관련 >

- 최종보고서 관련 분과장 회의에 권한 위임하고, 국가기록원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

□ 향후 계획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최종보고서 관련 회의 개최(12.28.)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최종보고서 제출(12.29.)

< 회의 개회 >

위원장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의임. 열심히 참석해 아이디어도 주시고 혁신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을 부가적으로 맡아서 실무 지원해주신 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지원팀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소연 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를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원 장 : 혁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장 퇴장)

< 총괄 보고 >

위원장 : 7차 전체회의 회의록 내용과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이대로 확정해 주어도 좋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팀 보고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 나눠드린 혁신추진체계 구성운영계획안 보고드립니다. 민간 전문가 국가기록원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담당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안은 혁신, 소통, 전문성 보장을 위해 원내외 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와 협의체를 운영하는 체계를 갖겠습니다. 기록관리 전문가로 구성하여 법령개정안, 혁신 실현방안 마련을 수행합니다.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입니다. 운영 방법은 원장 아래에 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혁신 방안 및 실현 방안을 자문심의함. 약 10명 내외의 기록관리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입니다. 본원과 대통령기록관 제도파트

등 8명 정도의 혁신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함. 여기에서 조직기능진단, 대외협력 및 소통 방안,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함. 다음으로 8대 혁신과제 협의회를 두겠음. 약 3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임. 소관부서 담당자, 기관 담당자들을 참석 시키려고 함. 정책기획과 내의 전담팀이나 협의회에 기관의 전문요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인력의 구성방법은 내부직원은 전원 직위공모제로 함. 협의회는 소관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 구성을 하고자 함. 외부 전문요원은 교류과건으로 추진함. 1월 15일 출범예정임. 혁신과제별 실행 방안 초안은 2월말, 혁신 실행방안 원내의견수렴, 법령 개정안에 대한 초안을 3월말까지 작성완료 할 것임. 그리고 법령 의견수렴은 4월말, 공청회는 5월, 혁신과제별 실현 최종안은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 내년 말까지는 법령개정안을 완료하고자 함. 늦어도 6월까지는 추진해야 함. 사무공간은 기존 T/F 사무실 사용 예정

위원장 : 과장님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 있으신지? 후속조치 관련임

설문원 : 협의회 운영기간은?

정책기획과장 : 6월말까지임

심성보 : 이 안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지? 내부직원 8명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김형국 : 2명은 외부 교류, 2명은 다른 과에서 공모, 4명은 정책기획과 정원으로 운영 예정. 내부인력 6명은 전부 공모예정

심성보 : 기록원 내부 공모인지?

김형국 : 본부 인사파트와 협의해서 타부처 공모자 2명 나머지는 기록원 내부 공모 6명임

심성보 : 타부처라고 하시는 것이 2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외부공모나 신규채용은 안되는지?

정책기획과장 : 네

심성보 : 협의회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김형국 : 소관부서이 장이 책임지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님께서 결정

심성보 : 협의회에 정책기획과가 관여하는 것은 없는지?

정책기획과장 : 방향성, 추진현황 등에 대해 컨트롤 함. 원장님에게 보고, 원장님의 의견을 협의회에 전달함

심성보 : 정책기획과내에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인지?

위원장 : 30명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임

김형국 : 과제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정책기획과는 일정조정하고 하는 등의 업무 담당

설문원 : 교류과전은 2명이고, 협의회 10명은 협의회만 참석만 하는지?

김형국 : 교류과전은 1대 1 교류로 받을 것 같음

심성보 : 폐단혁신과 관련된 후속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김형국 : 의도적으로 빼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을 주시면 반영해서 추가로 반영하겠음. 1분과 2, 3과제는 포함되었음

설문원 : 없는 것 아닌지?

정책기획과장 : 포함되어 있음. 국가기록원 조직, 기능 진단, 개편 등에 해당하는 과제임

심성보 : 조직진단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강화가 빠진 것은 아닌지?

김형국 : 포함되어 있음

김형국 :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협의회와 교류 참여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각급 기관에 문서로 요청하는 것 외에 부문별로 대표자를 선발해서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음

심성보 : 국가기록원 직원과 기관 직원의 교류과전 방식이 아니라 5, 6급 티오가 있다면 신규 채용을 해서 이러한 업무에 배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함. 교류 과전 방식으로 이런 일들에 참여하기 어려움. 경력과 능력이 된다면 새로운 현장성을 부가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함. 개인적인 요청임

조영삼 : 지금 채용은 어렵고, 내 후년에나 가능

김형국 :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은 걸림. 말씀드린 부분은 검토를 하겠음

심성보 : 정원이나 티오가 없는지?

김형국 : 빈자리는 현재 없음

정책기획과장 : 공채방식이므로 검토해 보겠음

김형국 : 그간 소규모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겠음

위원장 : 이정도로 마치겠음

위원장 : 다음으로 보고서 검토에 들어가겠음. 대통령기록관리 분과부터 해야 한다고 부탁하셔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 저는 계속 초안에 혁신으로 썼는데 개선으로 바뀌고 있음. 논의해서 통일바람. 각 분과위원들이 과제를 맡아 초안을 논의 하고, 실무팀에서 정리를 해주면 다시 의견을 모았음. 우선과제 4개 정도는 거의 완결되었음. 물론 이견이 있을 줄 알지만, 실무팀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한 번 다시 모여서 반영할 것인지 논의 하겠음. 하나 하나 내용을 얘기할 것은 아님. 중장기과제 역시 논의를 거쳐서 작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분과와 많이 겹치는 부분은 대통령 관련 부분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봤음. 2분과에 나오는 제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할 생각이 있음. 6과제는 제목이 조금 부정확

함. 시스템 요건과 기술에 관한 제목이 모호함. 구체적으로 요건이나 기술스펙에 대한 부분을 대비실에서 요구해서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충족할 수가 없어서 방향성 정도로만 넣었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소략하게 선별해서 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제시했음. 정치적 악용방지에 대한 과제는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그 동안 사례를 중심으로 그것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여러 안을 내보았음. 많이 논의가 될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현 정부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기록을 악용할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기록이 아닌 정보의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보고자 하였음. 이것으로 마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시면 최종적으로 수정하겠음

이원규 : 악용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의 필요 무엇이 악용이고 무엇이 활용인가

이상민 :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는 악용임. 사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등

전진한 : 의료법에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고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있음

이원규 : 부당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전지한 : 50쪽 보시면 부당한 목적으로 라고 명기했음

위원장 : 부당과 정당의 판단은 사법부에서 해야 함

김형국 : 기록관리법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음

이상민 : 4과제까지는 내용적으로는 한번쯤 보고가 되었음. 5-7과제는 기록원에서 검토해 주었으면 함

이원규 : 가지정, 최종지정 등 지정 시점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지?

이상민 : 가지정 없이 하려함

전진한 : 전 정부는 마구잡이로 했지만, 지금은 이지원시스템으로 하고 있음

이상민 : 가지정은 법령에 따른 것은 아니고 업무상 편의에 따라 함. 대통령 기록 지정 대리인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 취임 즉시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혁신보고서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은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이나 하는 부분이 중요함. 기록관리 혁신이 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방법론에 대한 논의 위주로 되었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법 취지에 대한 존중의식, 기록관리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함.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국민들이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김형국 : 가지정에 의한 비공개가 현재 이슈가 있어서 논란꺼리임

이상민 : 제도를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지정기록 공개·비공개 문제를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함. 비공개 기록 목록 공개 정도는 사회의 수준(기대치)에 따름. 민주주의의 정도 등이 중요함

조영삼 : 가지정을 미리 비공개 하는 것은 문제임. 비공개는 비공개하고 공개는 공개로 하는 것이 중요함. 대통령기록의 본질적인 문제를 현직 대통령으로 하는 것은 잘못임. 내용의 누설(보안관련 범위만) 별칙을 강화하는 것이 좋고, 지정기록 쪽을 건드리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함. 꼭 기록관리의 틀 안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봄

전진한 : 공무상 정보유출은 처벌조항이 없고, 대통령기록물법의 누설에는 있어서 대통령기록물법에 넣는 것도 타당함. 특히 보안관련은 전체 공무원이 대상이라 저항세력이 너무 많음. 어제 세월호 관련 사건에 국가기록원측 변호사가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서 판사가 열람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간접적인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던 검사에게 물었더니 처음에는 내용을 누설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으나 생각보다 내용이 없어서 놀랐으나 기록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음. 어제 기록원 변호사의 발언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었음. 기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채 소송을 한다는 모순에 빠져 있음

이상민 :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음

위원장 : 그런데 여기가 아니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상민 : 2분과 내용을 어제 보고 바로 검토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 나중에 분과장이 모여서 의견을 주기로 하면 좋겠음

위원장 : 전체회의에서 분과장 회의로 위임을 하던지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일단 전체회의에서 어느 정도 논의하고, 안 되는 부분은 추후에 분과장들이 모여서 승인하는 절차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이상민박사님은 분과장 회의에 거의 전권을 맡기자는 의견이었음

이상민 : 사실 개선안이라는 이름이 갖는 한계가 있음

위원장 : 우리 위원회 이름은 혁신인데, 왜 개선안인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음

이상민 : 혁신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위원장 :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하겠음

심성보 : 14페이지에 서버베이스드 컴퓨팅이 나오는데 생산관리과정 중에는 삭제는 안 되고 이관시점에서만 삭제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영남 : 생산에 관한 문제인데 앞으로는 서버 중심으로 일하자는 방식이고, 서버 기반 컴퓨팅을 우선으로 해서 생산을 장악해야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업무담당자는 곤란할 수 있음

심성보 : 대통령기록 이관 후라는 것은 5년 동안 한번 삭제하겠다는 것임. 나머지는 다 불법임

이영남 : 그동안은 컴퓨터 환경으로 이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현재 컴퓨터 환경에서는 모든 것을 서버에 남기고 그 중에서 무엇을 남기고 이관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서버를 삭제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음

심성보 : 감사나 수사를 위해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정권의 성격과 상관 없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보고 있음

이영남 : 요즘 기업도 서버기반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함. 노무현대통령도 등록할 수 없는 업무는 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남기셨음. 서버기반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심성보 : 원칙적인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서버에 모든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정쟁, 수사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격차이가 있음

설문원 : 이것은 기록생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수용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난 정부에서 통제 불가능한 공유폴더들이 나왔음. 그것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일수 있다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 다만, 폐기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별도의 기록관리스케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조영삼 : 문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낼 것임. 이를 테면 청와대 내에서 걸러지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것임.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봄. 절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함

위원장 :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음

김형국 : 3분과 작업은 생산과 동시에 기록이 되는 것인데 생산과 획득 사이에 갭이 있어서 생산과 동시에 획득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

이영남 : 등록시스템은 그대로 두는 것임. 추가적인 작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만들어진 기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1년 정도 이관을 준비하면서 획득해야 할 것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할 것임

조영삼 : 공공기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함. 그것을 동시에 염두해 두고 추진할 필요 있음

위원장 : 논의할수록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반증함. 이 정도 수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나머지는 혁신팀에서 좀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 이정도 선에서 넘어가고 2분과 발표를 듣겠음

설문원: 저희는 초초본 수준이고 정리가 필요한 상황임. 큰 방향은 지난 번 회의와 크게 차이가 없음. 내용이 좀 길어서 요약해놓았음. 몇 년부터 한다하는 것은 어려우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함. 법령 혹은 시스템 개선사항인지 아닌지를 구분했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보다 면밀히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함. 임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좀 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음. 3분과 보고서를 보니 저희와 조정이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기록의 범위와 성립의 기준 문제, 전자기록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랑 차이가 있음. 아무래도 3분과는 대통령기록에 치중하고 있으니 그럴 것 같음. 저희는 개체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보려고 함. 선언함으로써 기록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려고 함. 선언(declare)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기록으로 획득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함. 3분과와 논의 필요함. 그 다음에 기록관리기준표, 분류체계 개편을 기반으로 레코드 스케줄링을 도입한 기록관리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3분과와 같이 맞춰야 할 것 같음. 그리고 저희 회의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정보공개제도인데,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서 정리하는 중에 있음. 다음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관련 조영

삼 위원님 제안, 조언들을 보완하고 있음. 그리고 제도 관련 부존재로 인한 공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처분동결제도 등 저희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음

위원장 : 3분과와 모여서 언제?

설문원 : 보고서가 나와 비교해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율이 필요함. 공공기록의 범위 같은 부분들이 어려움.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보고서를 좀 더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논의하겠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어서 작업을 정비할 수 있는 추진체가 생긴다는 게 좋음

이원규 : 다 못한 것은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전진한 : 제안 있음. 공공기록관리 혁신 범위가 너무 많은데 순서가 즉시와 단기로 되어 있음. 국민들한테 영향이 커지는 순서대로 바꾸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 평가 보다는 공개와 검색 같은 것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함. 우리 TF도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림

설문원 :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되려면 기반이 잘 정비되어야 함.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너무 밖으로 보이는 것만 진행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덜 지지를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홍보차원에서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전진한 : 저희 TF도 국민 세금을 받는 기관이고 여러 기관에서 혁신안이 나

오는데 우리도 눈에 띄는 내용들을 더 위로하는 두괄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설문원 : 저도 그래서 2006년 보고서를 봤음. 정말 대중적으로 작성하였음. 공공기록관리를 모든 공무원이 사관이 될 때까지 등으로 되어 있고 서술이 매우 좋았음.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도 고민을 하겠음

위원장 : 실무팀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듯함. 우리는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제 생각으로는 2, 3분과 간 연석회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모르겠음. 보고서 내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모양이 우스워질 수 있음

심성보 : 이 안에서 대개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각을 세워 주시거나 용어통일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기록관리기준표, 기록조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15489 등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좀 부담스럽지만 상을 그리고 구체화해봐라 하고 던지시는게 좋지 않을까 함. 다음 단계에서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임. 저는 이 보고서가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보고서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연구하신 몇 분이 공론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편한 체계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준현용 서비스에 대해서 open.go.kr에 밀어 넣고 있는 문제, 기관 내에서 준현용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음. 너무 정보공개로 넘겨 놓은 것 같음. 다음은 기록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업무목록을 구체적으로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음. 이번엔 전문요원의 업무명세가 있어야 한다고 봄. 그것을 해야 비로소 1관 1사 제도를 개선

할 수 있음. 그것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임. 어딘가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의무적으로 할 것과 선택적으로 할 것을 항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음

설문원 : 좋은 의견 감사함. 이걸 그림으로 그릴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것인데, 고민해 보겠음. 전문요원의 업무명세 같은 부분은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조영삼 : 1관 1사의 체계가 업무명세를 한다고 해서 극복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음. 행정단위에서는 행정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룰 수 밖에 없음.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영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현장에서 1기관 1전문요원을 극복하는 것은 전문영역임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나열을 통한 도식화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함. 규정이나 법령으로는 될 수 없음

설문원 : 물론 그렇지만, 지금 전문요원의 권한과 책무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어떻게 해야 하냐는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같이 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함. 공개서비스 관련해서는 정경희 위원님이 하실 건데 서비스라는 부분이 현재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정리할 부분이 많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추가할 예정임. 통합시스템 등도 보완 예정

이원규 : 국민들과도 공감되는 부분이 정보공개가 가장 큰 데, 1분과에서 좀 부각시킬 수 있는지?

설문원 : 부존재관련 부분도 정보공개와 큰 관련이 있어서 우리도 해야 함.

부존재의 입증책임이 생산기관에 있다는 판례도 있음

위원장 : 그게 어디 법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설문원 : 기록물관리법에도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함

전진한 : 논리적으로는 정보공개법임. 청구자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는 것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 기회에 정보공개 청구는 현용에 한해서만 하고 준현용은 별도의 열람청구를 하자는 내용을 제안하는 것도 좋을 듯함

김형국 :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음. 다만, 11년 차에 넘어오니깐. 11년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시점을 정하여 별도의 열람청구 절차를 적용할지가 문제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에 대한 열람청구는 정보공개와 달리 할 것인지. 기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필요

전진한 : 딱 자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30년경과 기록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음

위원장 :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 다음으로 1분과로 넘어가겠음

심성보 : 2, 3과제는 아직 준비를 못했음. 1과제는 면담조사를 끝냈고, 사안별로 담당 위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위원장님께는 구두로 사안별 진행상황 보고를 드렸음. 오늘은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려고 했으나, 아직 문서정리를 완료하지 못했음. 일정을 보고 다음 주에는 위원님들께 문서로 보고 드리겠음

위원장 : 전체회의는 이제 없기 때문에 보고서 절차 상 1분과도 어느 정도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28일 회의는 기본적으로 전체회의는 아니니 분과장, 저하고 중심이고 당연히 위원님들도 참석가능함. 한번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음. 전체회의 개최가 긴급한 경우가 아닌한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보고서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들이 승인해서 절차를 완성하는 것이 좋음. 특히 1분과 1과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함. 지금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어렵지만, 보고서 내용, 형식, 결과 등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이원규 : 저는 개인별 면담 내용을 알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확인되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는 필요함

조영삼 : 필요한 경우에는 이름을 넣고, 하려고 함

전진한 : 제일 관심이 높은 건 블랙리스트인데 그건 일부 확인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시면 어떨지?

심성보 : 말씀드리면, 11개 사안 안에는 ICA서울총회 내용이 있어서, 14~16년에 국가기록원이 장차관에 보고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현안 보고들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담당자 PC에서 나온 현황자료들을 통해서 15년에 문제교수, 문제인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서, 관련 사실을 조사하게 되었음. 15년 3~4월경의 현안보고 자료 중에 문제위원, 문제교수 등의 표현이 나오고, 이 시기에 22개 위원회 1,095명이 주요 외부 인사들이며 그 중 '8개 위원회 20명의 위원을 교체' 라는 표현이 나옴. 그 보고서의 문맥

상 향후 임기 도래 시 문제위원 단계적 교체 추진이라는 문구가 있음. 15년 3, 4월이라는 시점에 8개 위원회 20명을 향후 임기 도래시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음. 이미 ICA관련 문제있는 준비위원 3명을 교체했다는 내용도 나옴. 또한 일부 문제교수가 주도하는 기록관리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930개 기관 3천여명, 22개 관련 위원회 1천여명 위원 등의 자원을 국가기록원 중심으로 조직화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국가기록원이 주도하는 기록관리 거버넌스체제 구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발견됨. 이런 표현에 주목하여 그 정황 자료들을 조사하고 있음. 11개 사안 중, ICA관련 사안에 포함되어 있음. 현재까지 관련 면담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음. 이 문제가 향후에 어떤 차원에서 조사되었으면 좋겠는지 방법을 찾고 저희 보고서 끝에 권고를 담고자 함

전진한 : 노무현 대통령 고발 경위는?

조영삼 : 2008년 관련해서 완벽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파악함

이원규 : 국가기록원이 고발했는지?

조영삼 :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고발장 초안과 고발 기초자료를 전달해 주었고, 기획관리비서관실은 그 기초자료를 공문으로도 주었음. 국가기록원은 수동적으로 부응했음

심성보 : 청와대는 고발장 초안을 제공했으나 이를 공문으로 주지는 않았고, 고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공문으로 준 것을 확인했음

조영삼 : 조사보고서 초안은 현재 다 고쳐야 함. 이 사안에 대해서 안다고 생

각했는데 새로운 자료들과 보지 못한 기록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임

심정보 : 11개 사안을 다 하자는 것은 아니나 이상민 위원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기록사건 진실위원회가 되었든 지속적인 조사, 기록수집이 지속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그 사건들이 묻혀버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함. NLL, 노무현 대통령 고발사건 등은 한 순간에 조사와 진실규명이 될 일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고 기록관리계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조영삼 : 검찰기록 등이 존재하는 것만 알고 있고, 접근을 못 하고 있음. 수량도 많고 연구가 필요할 정도임

위원장 : 1과제 후속 작업도 인계받을 분들은 받아서 기록원에서 받았으면 좋겠음.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기록원의 판단인데 의견은 그렇게 내려고 함. 그리고 보고서의 포함은 당연하나 수위나 범위는 검토하여 간략히 하고, 자료집의 형태로 남겨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함

이원규 : 관련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전진한 :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음

위원장 : 그것은 기록원에서 알아서 처리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람

설문원 : ICA과제 선정과정에 개입된 부분이 있는지? 과제제안서를 냈는데 다 탈락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 학회가 모두 탈락했었음

심성보 :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음

설문원 : 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개질의를 했는데, ICA가 결정했고 기록원은 모른다는 답변

조영삼 : 대부분 그런 식의 답변을 하였음

심성보 : ICA총회 발표문으로 최종 제출된 것의 목록과 그 중 탈락한 것의 목록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아직 확인하지 못했음. 1분과 1과제 폐단 혁신과 관련된 11개 사안은 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ICA총회, 4대강 영상기록화, 대통령기록관 현판교체 등임. 지난번에 현판교체 관련해서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 속기록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관하여 보고드릴바 있는데, 오늘 대통령기록관 측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했음을 보고드릴

위원장 : 그러면 1분과 1과제는 별권으로 비공개 하도록 하겠음. 다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임

전진한 :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면 공개될 것인데, 이름 같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조영삼 : 이름을 안 적을 수 없음

위원장 :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 원본에 안 적을 수 없음

심성보 : 1분과 1과제 관련 별권 보고서 중에서 비공개할 부분은 1분과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면 부담은 없을 것임.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주시면 더 권위가 세워진다고 생각함

위원장 : 정경희 교수님 의견 어떠신지?

정경희 : 뾰족한 방안은 없음

위원장 : 보고서 절차는 2, 3분과 검토내용에 기초해서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분과장 회의에 권한을 일정정도 위임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음. 필요하면 위원님들을 따로 모시겠음. 다음에 보고서가 작성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서로 작성해서 기록원에 제출하고, 장관께도 제출할 것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지 논의 바람

설문원 : 언론에 내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필요

전진한 : 저는 의무라고 생각함. 국민 세금으로 한 일인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분과 1과제, 2분과 공공기록관리 개선, 특히 3분과 대통령기록 관련 내용 등은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된 부분이므로 필요하다고 봄

조영삼 :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나 대통령부분은 확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면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함.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

이원규 : 후속 위원회까지 언급하는 것이 좋음

심성보 :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록공동체 내부에도 제출하는 것이 좋음. 장관
보고나 시점을 연계해서 보도자료든 뭐든 하는 것이 필요

전진한 : 그러지 마시고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음. 어쨌든 TF 위원으로 참여
했으니까 결과물을 언제 발표할지 명확히 하고 그 날 다시 모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위원장 : 기록공동체 내부의 세레모니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공표를 하면 공동체내에도 공유가 되는 것이
니까 별도 이벤트는 반대임. 목표 일자를 잡자는 것과 장관보고 시
점 등 두 안을 검토

위원장 : 같이하면 원장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음. 이 문제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논의는 더 필요함

설문원 : 장관 보고는 같이 하더라도 언론보도는 분리하는 것이 타당

위원장 : 보고서 완성과 언론보도용 자료는 뽑아 내는 것은 다른 일임

조영삼 : 기자회견팀 구성해야 함. 2주 이상 걸린다고 생각함. 정리해야 함

심성보 : 제안드리면 분과별로 1명씩 기자회견 준비멤버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위원장 : 전진한 위원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람. 장관께서 보고를 해 달
라고 할 수 있으니 그것부터 작성해야 함

심성보 : 위원을 분과별로 1명씩하면 될 듯함

전진한 : 조영삼과장님이 3분과는 하지 말자고

조영삼 : 수위조절하자는 것이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님

이원규 : 지정은 이렇게 하겠음. 이런 발표는 하지 말자는 것임

조영삼 : 확정적인 것 보다는 추상적인 내용이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위원장 : 그런데 기자들은 추상적으로 하면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됨. 그러니까 조영삼위원은 꼭 필요함. 1분과는 조영삼위원, 3분과는 전진한위원, 2분과는?

설문원 : 제가 하겠음

위원장 : 준비팀은 조영삼, 설문원, 전진한, 심성보 위원은 1분과 1과제도 가능성이 있으니 참석바람

조영삼 : 제 생각에는 블랙리스트 보다는 대통령관련 이런 부분이지 더 관심을 받을 것 같음

위원장 : 기자들이 혁신방안 등은 어려워 함.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음. 감사함